

*DABIQ*에 나타난 IS의 칼리파제론 연구*

| 정 상 루**, 이 종 화*** |
Jung, Sang-Ryul, Lee, Jong-Wha

Study on Khilafah in *DABIQ*

Ultimate goal of Islamic State(IS), which is based on Iraq-Sham/Lebant and is expanding its control area, is to establish Khilafah, in other words Islamic State. IS separate the world into Dar al-Islam and Dar al-Harb, and then is pursuing expansion of Dar al-Islam. IS has designed its road map to accomplish this goal as following; hijrah(emigration) → Jamaah(congregation) → destabilization taghut(idolatry) → tamkin(consolidation) → Khilafah(Caliphate).

This study is aimed at a critical review on Khilafah(Califate), Islamic state which IS want to establish ultimately through analysis of digital journals for public relations, *DABIQ ISSUE* series(*DABIQ ISSUE NO.1~DABIQ ISSUE NO.6*). IS began to publish *DABIQ ISSUE* series on July, 2014, and on January, 2015, *DABIQ ISSUE NO.6* was published. Khilafah is the same kind of Islamic theocracy that several Islamic philosophers or Islamic thinkers deemed a ideal community and many political Islamic organizations longed for establishment.

I am sure that, i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can understand what IS's concluding goal is and what its strategy to establish Khilafah is, and that we can respond to IS's action.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2-A00004).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제1저자), E-mail: skyblue8731@hanmail.net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aharalj@hanmail.net



[Key Words: ISIS, ISIL, IS, Islamic State, DABIQ, Khilafah, Salafist-Jihadism, Abu Musab al-Zarqawi, Abu bakr al-Baghdadi, bay'ah, lone wolves, Islamization of state, Jama'ah, Imarah, Ta'ah, hijrah, tamkin]

I. 서론

최근 IS(Islamic State)가 중동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해 가면서 매우 잔인한 폭력적 수단, 즉 참수, 집단 총살,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노예화 등과 같은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IS는 칼리파제 정치경제체제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국가이념으로 '살라피스트-지하디즘(Salafist-Jihadism)'을 채택하고 있으며, '반 세속' '반 서구 및 반 기독교' '반 시아'의 기치 아래 '공포감' '풍부한 자금'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다.¹⁾ IS가 칼리파제 국가 수립을 천명한 것은 이슬람 움마, 즉 근현대적 용어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IS가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IS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다자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지상군 파병 없는 공습 위주의 군사적 옵션을 들고 나왔다.

9.11 테러 13주기 전날인 2014년 9월 10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IS의 시리아 점령지역을 공습하기로 결정했고, 9월 22일 시리아를 공습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내재된 결단(Inherent resolve)'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종전 및 미군 철수 공약을 했다. 그는 2011년 12월 15일 '이라크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으며, 12월 18일 이라크에서 철군을 종료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과는 다른 명분으로 미국은 2014년

1) 본 글에서 Islamic State(IS)와 Islamic state를 구분하여 사용함. IS는 일종의 국명이고 Islamic state는 국가(state)-사회(society) 관계에 있어서 '국가(state)의 성격', 즉 국가(state)의 이슬람적 성격, 국가의 이슬람화를 의미함.

8월 8일부터 독자적으로 IS의 이라크 점령지역을 공습해 왔으며, 9월 22일부터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이름으로 IS 시리아 점령지역을 공습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군한 이후 32 개월 만에 다시 ‘중동이슬람지역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에 의해 ‘민주화 예외지역(exceptional area of democratization)’으로 여겨졌던 중동아랍이슬람지역에서 2010년 말 이후 아랍민주화 도미노 현상(아랍의 봄)이 발생했으나 민주화에 대한 반동 현상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심화, 지속되고 있다. 리비아 내전과 가다피정권의 붕괴, 30년 무바라크 군사정권의 붕괴 및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세력인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중심의 무르시 정권의 등장, 그리고 군부쿠데타에 의한 무르시정권 1년 천하, 여러 아랍 국가들에서 정치이슬람 세력의 부상, 시리아 내전과 바샤르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한 ‘시리아 문제의 국제화’ 현상,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를 점령해 가면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극단적 이슬람주의 세력 IS 등장 등 최근 중동은 ‘불안정성의 향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 현상은 ‘정파간 폭력’(Hof, Hariri and Simon 2013)²⁾ ‘정체성 위기’(Kaplan 2011)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동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정파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많은 단층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단층선은 중동 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IS는 시리아 및 이라크의 반정부 세력 중에서도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순니 정치이슬람 조직이다. 그런데 IS는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세계를 ‘다르 알 이슬람(Dar al-Islam)’과³⁾ ‘다르 알 하르브(Dar al-Harb)’로⁴⁾ 이분하고,⁵⁾ 다르 알-이슬람 건

2) The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Genocid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의 요청으로 작성된 외교관인 호프(Frederic C. Hof) 등이 작성한 논문의 제목이 “Sectarian Violence in Syria’s Civil War: Causes, Consequences, and Recommendations for Mitigation”임

3) ‘평화의 땅’ 즉 이슬람 지역을 의미함.

4) ‘전쟁의 땅’을 의미함. 비이슬람지역, 비무슬림을 가리키는 말.

5)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는 “세계는 두 캠프(two camps), 즉 ‘이슬람과 믿음(faith)의 캠프’와 ‘불신(kufr = disbelief)과 위선(hypocrisy)의 캠프’로 구분된다.”고 주장함(DABIQ 4 1435; Gambhir 2014, 4). 유대인, 유대인을 따르는 모든 자, 기독교인, 십자군과 그 동맹국들(미국의 아랍 동맹국들), 시아파 무슬림이 후자에 속함.



설, 즉 칼리파제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위해 성전(Jihad)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나 9.11 테러사건 이후의 미국 내 네오콘들의 ‘내 편 아니면 적’ ‘우리 대 그들’의 논리와 유사한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알 까에다와 여러 지역의 자생적 알 까에다 및 IS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이해, 해석하고, 자신들은 다르 알 이슬람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하드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상률 2014, 5).⁶⁾

IS는 홍보수단 및 IS 내외부와의 정보 소통 수단으로 인터넷 매체인 *DABIQ*라는 저널을 활용하고 있다.⁷⁾ *DABIQ*에는 이슬람국가의 전략 방향, 무자헤딘 충원 방법, 정치-군사 전략, 부족동맹군 형성, IS 무자헤딘의 점령지, 이슬람국가의 차기 목표물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IS는 1인 미디어인 SNS(Web 3.0 또는 Web 4.0)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인남식 2014, 18-20), *DABIQ*를 통하여 칼라파(Khilafah), 즉 칼리파제 국가, 이슬람 국가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DABIQ ISSUE NO.2* 1435, 3-4).

본 연구에서 필자는 주요 이슬람 정치사상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칼리파제에 대해 평가하고, *DABIQ*에 나타난 IS가 천명하고 있는 이슬람 칼리파제의 내용 및 IS의 이슬람국가 구성 방안을 분석한다.

6) IS는 지속적 확장을 추구하기 전에 우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함. 사이크스-피코 체제나 발포어 체제의 해체를 추구함.

7) *DABIQ*는 영어와 일부 유럽어로 발간되는 전자 잡지(digital magazine)임. *DABIQ ISSUE NO.1*은 ISIS가 모술을 점령한지 한 달 만인, 그리고 IS가 국가를 선포(2014.6.29.)한지 6일 만인 2014년 7월 5일, 2권은 2014년 7월 27일 발간됨. 3권은 2014년 8월이나 9월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4권은 2014년 10월 15일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짐. 5권은 2014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6권은 2015년 1월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됨(6권에는 이슬람력 1436년 3월(RABI' AL-AWWAL)로 표기되어 있음. 특별히 ‘이슬람력 3월’을 표기한 이유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3월에 출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내용은 이슬람 종교개념(Islamic religious concepts)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적은 물론이고 서구의 IS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음. *DABIQ*가 발간되기 이전인 2014년 5월 31일에 *Islamic State News(ISN)*, 2014년 6월 3일에 *Islamic State Report(ISR)*를 발간한 적이 있음. 이 두 발간물은 2014년 7월 5일 *DABIQ*로 통합되어 출간되면서 발간을 중단함.

II. 칼리파제 이슬람 정치사상

IS가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칼리파제 국가란 어떠한 국가인가? 먼저 칼리파제, 즉 이슬람국가의 기원은 이슬람 창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슬람 국가의 원형은 무함마드가 622년 아라비아 반도의 메디나에 최초로 설립한 이슬람 움마(ummah)이며, 최초 칼리파는 무함마드 사후 무함마드의 최초 후계자였던 아부 바크르(Abu Bakr, 632~634 재위)이다. 오마르(634~644 재위), 오스만(644~656 재위), 알리(656~661 재위) 까지를 라쉬둔 칼리파조(الخلافة الراشدة, the rightly guided Caliphs), 즉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하며, 대부분의 이슬람 사상가 및 정치 이슬람 그룹들은 이 시기를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다. 손주영 교수는 이븐 알 무깃파아를 가장 초기의 이슬람 정치사상가로 보는 듯 하며, 무깃파아는 압바스 시대인 759년에 사망했다(손주영 1997, 271). 고대의 무깃파아, 아부 유수프, 알 자히즈와 중세 시대의 알 마와르디(Al Mawardi), 알-가잘리, 이븐 칼둔, 현대의 자말 알-딘 알-아프가니(jamal al-Din al-Afghani, 1838~1897), 마우두디(Abul A'ala Maududi) 등 대부분의 이슬람 (정치) 사상가들은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대제국을 건설한 정통 칼리파 시대(632~661)를 ‘칼리파 황금시대(Khalifa Rashidun)’로 간주하고 ‘올바로 인도되는 칼리프(Rightly Guided <Rashidun> Caliphs)’에 의한 통치체제, 즉 칼리파제(이맘제)를 이상향으로 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설계해왔다. 이 공동체는 모든 무슬림들이 움마라 불리는 ‘믿는 자들의 단일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아싸비야(assabiya)라고 불리는 공동의 연대감(feeling of solidarity)을 공유하며, 단일 칼리프가 통치하는 체제이다.

이슬람 칼리파제는 오스만 제국이 붕괴된 1924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고, 지역 유력자들이 현재의 아랍 국가들을 건설하여 통치자, 즉 아미르(국왕)가 되었다. 1924년에 무함마드의 후손인 메카의 후세인(Sherif Hussein bin Ali)이 자신을 모든 무슬림들의 칼리프라고 선언했으나,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설립자인 알 사우드(Abdulaziz Al-Saud)에게 패배함으로써 칼리프로서의 자격은 상



실되었다. 1924년 이후 칼리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이슬람 정치사상가들 뿐 아니라 1927년 이집트에서 건설된 무슬림형제단 이후의 여러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세력들은 칼리파제의 복원이나 칼리파제 국가(이슬람국가) 건설을 꿈꾸어 왔다. IS는 이러한 여러 정치이슬람 그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주요 정치이슬람 운동가로는⁸⁾ 무함마드 압두(Muhammad Abduh, 1849~1905), 라쉬드 리다(Rashid Rida, 1865.9.23.~1935.8.22.), 하산 알 반나(Hassan al-Banna (1906.10~1949.2), 사이드 꾸툼(Said Qutb, 1906~1966), 그리고 최근에 알-카에다를 조직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1957.3~2011.5)과 알-자와히리(Ayman Al-Zawahiri)가 있다.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에게 충성맹세를 했으나 후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 알-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⁹⁾ 이라크이슬람국가(ISI, 2006.10~2013.4)를 조직한 알 자르카위의 후계자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Abu Omar al-Baghdadi),¹⁰⁾ 역시 알 자르카위의 후계자이자 ISIS/ISIL의 지도자인 알-마스리(Abu Ayyub al-Masri), 알-라쉬드 알-바그다디(Abu Abdullah al-Rashid al-Baghdadi, ? ~ 2010,8), 2014년 6월 29일¹¹⁾ ISIS/ISIL을 IS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신을 칼리파로 선언한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Amirul-Mu'minin Abu bakr al-Husayni al-Qurashi al-Baghdadi)¹²⁾ 등이 있다. 오

8) 이슬람(정치) 사상가와 정치이슬람 세력인 이슬람 정치운동가 간 경계는 명확하지 않음.

9) 알-자르카위는 유일신과 성전단(1999~2004)을 조직하여 이 조직을 확대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알-카에다(the al-Qaeda Organization in the Land of the Two Rivers) 또는 이라크 알 카에다(AQI, 2004~2006), 무자헤딘 슈라위원회(Majlis Shura al-Mujahadin, MSM, 2006.1~2006.10)로 명칭을 변경해 왔음. 알-자르카위는 이라크 내 5개 지하디스트 조직을 규합하여 MSM을 조직했으나 2006년 6월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고, 아부 함자 알-무하지르(Abu Hamza al-Muhajir)가 알-자르카위의 후계자가 됨. 알-자르카위와 알-무하지르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후계자 알-자와히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함.

10) 2006.10.15, AQI와 Jeish al-Fatihah, Jund al-Sahaba, Katbiyan Ansar Al-Tawhid wal Sunnah and Jeish al-Taiifa al-Mansoura 등 무자헤딘 슈라위원회(Majlis Shura al-Mujahadin)를 포함하는 이라크 반정부 그룹(Iraq insurgent groups)의 합병을 통해 이라크 이슬람국가(ISI)가 만들어짐. Abu Omar al-Baghdadi가 ISI의 첫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음.

11) 이슬람력 1435년 라마단월 첫 날임.

12) 1971년 이라크 사마라에서 태어난 그는 Abu Dua, Amirul-Mu'minin Abu bakr al-Husayni al-Qurashi al-Baghdadi, Amirul-Mu'minin Abu Umar al-Husayni al-Baghdadi(rahimahullah),

사마 빈 라덴, 알-자와히리, 알-자르카위,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 알-마스리, 알-라쉬드 알-바그다디,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는 이슬람정치사상가라기 보다는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그룹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이슬람 정치사상가들의 칼리파제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와르디는 압바스조 제26대 칼리파 알 까디르(al-Qadir, 991~1031 재위)와 제27대 칼리파 알 까임(al-Qaim, 1031~1075 재위) 통치 시기 중에 *Al-Ahkam al-Sultaniyya*를 저술하였다.¹³⁾ 그는 *Al-Ahkam al-Sultaniyya*의 서문에서 주권재신, 신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움마 지도자(무함마드)와 그의 예언자적 지위, 이맘제(칼리파제) 국가의 창설과 대리자의 통치권, 이맘제 국가의 통치법과 행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Yate 1996, 8).

“알라에 의해 한 명의 움마 지도자가 대리자로 임명되었으며, 그 움마 지도자는 예언자지위의 계승자이고 국가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알라는 그에게 정치적 경영(political management) 업무를 양도하여 업무가 정당한 종교(이슬람)로부터 발전하고, 말도 만장일치에 따르며 모든 사람이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맘제(Imamate)는 국가 설립 근거의 기본원리이고 이맘제로 인해서 움마의 공공이익이 유지되고, 이맘제에 의해 공공이익의 문제를 잘 배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해준다. 이맘제에 의해 다른 특별한 또는 분화된 행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통치법(rule of governance) 이전에 이맘제 통치법(rules governing Immate)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이 법규들을 시험하는데 특히 적합한지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와르디는 이맘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7가지로 규정하고, 이러한 조

Ibrahim Awwad Al-Badri = Khalif Ibrahim, Abu Bakr Al-Baghdadi Al-Husseini Al-Qurashi, Abu Bakr Al-Baghdadi, Ibrahim bin Awad bin Ibrahim Al-Badri Al-Radawi Al-Husseini Al-Samarra'i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그다드의 이슬람대학 졸업(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13) 이 저술의 제목은 영어로 '통치법령(The Ordinances of Government)' 또는 '이슬람 통치법(The Laws of Islamic Governance)'으로 번역되었으며, '술탄제 법령' 또는 '술탄통치와 종교통치'의 의미로 해석된다.



건을 갖춘 사람 중 소수로 구성되는(1~6명) 선거인단에서 호선하는 방안, 전임 이맘의 위임에 의한 이맘위 계승 방안을 시시콜콜 언급한 후, 이맘위, 즉 칼리파의 10가지 공무에 대해 피력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로 보아, IS의 알-바그다디가 스스로를 칼리파로 결정하고 칼리파로 불리도록 하는 것은 마와르디의 이맘위 자격 조건과는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근대 이슬람 개혁주의 사상가인 압두(Muhammad Abduh, 1849~1905)는 제자인 라쉬드 리다와 함께 살라피야 운동을 체계화한 이슬람 사상가이다. 압두는 전통 이슬람 세계도 과학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종교와 과학은 이슬람의 기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슬람 근대화 이론을 세웠다. 압두는 이슬람 사회의 개혁이 이슬람에 대한 재해석과 국가의 교육 및 사회개혁 의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종교와 교육 및 사회개혁에 눈을 돌렸다.

190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할 때까지 이집트의 그랜드 무프티로서 개혁을 통한 칼리파제 복원을 희망했으며, 그의 사상과 이론은 무슬림형제단의 설립자 하산 알 반나 등의 개혁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쉬드 리다(Rashid Rida, 1865.9.23.~1935.8.22)는 스승 무함마드 압두와 함께 출간했던 알-미나르(Al-Manār, 등대)紙에서 무함마드 압두의 사상과 개혁적인 이슬람 법 해석을 발표했으며, 결국 ‘압두의 대변자’라는 호칭을 얻었다. 라쉬드 리다는 이슬람 세계의 쇠퇴 원인을 ‘원래의 진정한 이슬람으로부터의 이탈’에 있다고 보고 초기 이슬람 시대(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의 이슬람 전통)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와하비즘의 찬양자였던 그는 이슬람 세계가 서구에 대항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슬람의 원리, 즉 코란, 하디스(Sunna,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순나(Sunna, 이슬람 초기 시대의 전통과 관행)로 돌아가는 길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라쉬드 리다는 다른 이슬람주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상적 공동체는 이슬람 공동체 움마(Ummah)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칼리프 제도의 복원에 깊은 관심을 쏟았고, 그 결과 1921년에 《칼리프제와 이맘제(al-Khālifa wa al-Imāma al-Uzmā)》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라쉬드 리다는 가장 이상적인 칼리프제는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주장했다. 1924년 3

월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칼리프제가 폐지되자 알 아자르 대학의 올라마(법학자)들과 함께 칼리파제 부활에 대해 논의했고, 이슬람 칼리파제 부활회의(1926년 카이로)에서는 이집트 푸아드(Fuad) 왕을 칼리프로 옹립하고자 노력했다. 서구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도입 등 이슬람의 근대화를 주창했던 다른 사상가들과는 달리, 이슬람 전통, 이슬람의 근본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무함마드 압두와 라쉬드 리다의 칼리파제 구축 목표는 IS의 알-바그다디가 주장하는 칼리파제 구축 목표와 유사하지만, 압두와 리다가 칼리파제 구축을 위한 투쟁에 행동으로 적극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산 알-반나는 1928년 무슬림형제단을 창시한 이슬람 사상가이자 행동가이다. 알-반나는 무함마드 압두와 그의 제자 라쉬드 리다 등의 이슬람개혁주의자들의 사상에 심취했고, 이집트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순수한 이슬람으로 회귀하고, 전통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1927년 다르 알-울룸을 졸업한 뒤 수에즈에 위치한 이스마일리아(Ismailiyya)시의 한 초등학교의 아랍어 교사로 부임한 후인 1928년 3월에 소규모 이슬람 공동체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ethren)을 창설했다. 이 조직은 1932년 카이로에 본부를 만들었고, 1930년대 말에 조직원이 50만 명에 이르렀다. 반나의 주요 사상은 순수한 이슬람으로의 회귀, 외세 배제였고, 점차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공공복지, 교육, 천연자원의 활용, 사회주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호소, 아랍민족주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등 이집트 및 아랍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에 무슬림형제 단원들을 팔레스타인에 파견하는 등 무장투쟁에 참여했다. 1949년 2월 12일 정부의 암살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하산 알-반나는 사상가라기보다는 이슬람근대화와 이슬람국가 건설을 실천한 행동가에 가까웠다. 현재 IS의 언행으로 보아 이슬람 칼리파제 구축을 목표로 투쟁했던 하산 알-반나의 언행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S의 칼리파제론 구축 목표는 하산 알-반나의 무슬림형제단 구축 목표와 상당한정도 일치하지만, 그 수단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1930년대~5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꾸툼(Said Qutb, 1906~1966)은 영국의 식민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마소 중심의 냉전 이데올로기, 1952년의 나세르 군사혁명의 세속적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을 경험하면서 이집트 사회가 직면한 병리를 치유하는 방안으로 이슬람식 근대화를 주장했다.¹⁴⁾ 그는 영국의 식민제국주의로부터 세속적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병폐를 발견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슬람 이념을 이상적 사회 기반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슬람에 기반을 둔 무슬림공동체, 즉 현대식 움마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다.

마우두디(Abul A'ala Maududi, 1903~1979)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적으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마우두디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슬람국가’를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삶의 총체적 체계이며, 현대적 의미의 이슬람 국가는 신의 절대성에 기반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이슬람국가는 무함마드가 꾸란과 하디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타우히드(tawhid)와¹⁵⁾ 신의 절대성에 기반한 정치경제 체제이다. 브리스(Bert de Vries)는 논문 “이슬람에서의 신정정치(Theocracy in Islam)”에서 마우두디가 생각했던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전역사적 견해(transhistorical view)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① 모든 행동은 종교적 행동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행위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가 행하고 말한 것은 국가의 단순한 정치지도자의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무슬림 인간의 행위였다. ② 메디나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움마는 완전한 신정 국가였다. 그것은 예언자가 통치하는 부족연합(tribal confederacy)이었다. ③ 이러한 이슬람 사회에서는 정신영역(spiritual realms)과 정치영역(political realms)은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자신의 의지를 국가(body politic)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인간에게 표현한다. 인간과 국가 간에 조화는 성취된다.

14) 꾸툼은 『이슬람에서의 사회정의(1949)』, 『세계평화와 이슬람(1951)』에서 이슬람부흥주의를 주장했다.

15) 일원적 유일신관(Oneness of God).

④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전해진 문자화된 신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성서’가 아니라 모든 측면의 무슬림 생활에 대한 포괄적 안내자이다. ⑤이슬람 국가는 신법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그 안의 모든 시민들은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 이슬람 국가는 국경, 인종, 성, 계급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의 멤버십으로 규정된다. ⑥이슬람국가의 신정제도를 특징지우는 것은 칼리파제(Caliphate)와 올라마(ulama)이다(Jakson 2011, 87-88).

마우두디는 이슬람 헌법, 즉 이슬람국가의 네 가지 명확한 패러다임(specific paradigms), 또는 네 원천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①성 꾸란, ②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③야스립(메디나)에 세워진 최초 이슬람국가, ④무함마드 사후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칼리프(Rightly Guided Caliphs, *Khalifat-e-Rashidun*)의 시대’였다(Jakson 2011, 84). 마우두디는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슬람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든 방식, 즉 이슬람 황금시대의 정치-종교 비분리라는 이슬람 이념으로 이슬람을 부흥시킨다면, 현대에서도 이슬람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순수 이슬람(pure Islam)을 강조했는데, 순수 이슬람은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 즉 삶의 전체를 의미했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삶 뿐 아니라 정치적 삶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순수 이슬람 국가(pure Islamic state)는 플라톤이 『국가(*Republic*)』에서 구상한 이상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극단적 유토피아이며 일종의 전체론적 국가이다. 마우두디는 이슬람국가를 지나치게 이상화시켰고, 이슬람이 이슬람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즉 이슬람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초역사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IS가 구축하려는 칼리파제는 마우두디의 이슬람국가론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마우두디는 이슬람 사상가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언급했으나 IS는 실제 행동을 통해 칼리파제 국가, 즉 이슬람국가를 구축하려고 잔인한 폭력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오늘날 어느 국가가 현실 이슬람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이슬람 사상가들과 정



치이슬람 세력들 각자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 이슬람 정통성의 전형(epitome of Islamic orthodoxy)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했고 많은 무슬림 근대주의자들(Muslim modernists)로부터 ‘희망이 없는 낡은 모자(hopeless old hat)’로 낙인이 찍힌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은 이슬람 정통성이 결핍된 급진 종교세력들(radical religious forces of lacking Islamic legitimacy)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Carl Brown 2000, 1-2). 알 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국가로 보지 않았다. IS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을 다음 킬라파 건설을 위한 목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급진이슬람 그룹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li kull makan wa zaman*)” 유효한 ‘오직 하나의 진정한 이슬람’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슬람 초기의 ‘황금시대의 재구성(reconstruction of golden age)’, 즉 ‘이슬람의 세계(*dar al-Islam*, the abode of Islam)’ 건설을 목표로 투쟁한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일종의 ‘이슬람 신정체제’이다.

서구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나 전통 이슬람에서 근대화 방안을 찾는 사상가 모두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움마공동체, 즉 현대적 용어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꿈꿨다고 할 수 있다. 자칭 IS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정치이슬람 그룹 중의 하나이며, 특히 근본주의적이고 폭력적 극단주의, 즉 살라피스트 지하디즘을 킬라파제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III. *DABIQ*에 나타난 IS의 칼리파제론

1. 십자군과의 종말론적 전투 지역, 다비끄

IS는 자신들을 하나의 국가, 즉 영토적 주권국가로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국기,¹⁶⁾ 수도,¹⁷⁾ 공식 언어,¹⁸⁾ 정부형태,¹⁹⁾ 최고 통치자를 천명했고,²⁰⁾ 슈라위

원회 구성,²¹⁾ 보건과 교육 관리, 공공질서 유지, 샤리아에 기초한 법원 설립, 사법제도와 군사 및 치안 기구 설립, 국가 이념 설정,²²⁾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회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²³⁾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 16) 국기에 '라 일라하 일랄라(알라 외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쓰여져 있으며, 국기 가운데에 '무함마드의 인장'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흰 원과 검은 글씨, 즉 '무함마드 라수룰라(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가 있음.



- 17) 시리아의 라까(Ar-Raqqah) 시
 18) 아랍어
 19) 이슬람 칼리파제
 20) 칼리파. IS의 칼리파는 제1대 알-자르카위(ISI 설립), 제2대 알-마스리(2010년 4월 마-이라크 공동 공습을 받아 사망, ISIS/ISIL 시기), 제3대 알-바그다디(Abu Abdullah al-Rashid al-Baghdadi, 가공의 인물, 미국에 의해 낱조된 인물로 소개되기도 하고, 알-자위(Hamid Dawoud al-Zawi)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2010년 8월 18 '마-이라크 공동 작전 중 집에 떨어진 포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됨, ISIS/ISIL 시기), 제4대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2010.8~2015.2 현재. 2014.6.29에 IS로 명칭 변경하고 자신을 칼리파라고 칭함)로 이어지고 있음.
 21) 슈라위위원회는 각 국가에 따라 협의기능, 자문기능, 의회기능(입법기능)을 하고 있는 바, 현재 IS에서의 슈라위위원회는 종교 및 군사 업무에 관한 협의나 자문 기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그림4) 참조.
 22) 살라피스트-지하디즘(Salafist-jihadism), 알-까에다와 탈리반의 이념과 같지만, 칼리파제 국가 건설 시기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음. 살라피스트 사상은 정통 칼리파 시대의 순수 이슬람(pure form of Islam)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엄격하게 규정된 이슬람 해석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을 타크피르(takfir), 즉 '이단자'로 규정함. 정치운동으로서의 살라피즘은 와합(Mohammed Ibn Abd al-Wahhab, 1792년 사망)의 독트린인 와하비즘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됨. 살라피즘과 와합비즘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와하비즘은 살라피즘의 부분집합(subset)임. 살라피스트였던 사이드 꾸툼(Sayyid Qutb)의 자힐리아(jahiliyya, 이슬람 이전의 무지의 시대) 사상은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 마우두디의 사상 위에 구축된 '폭력적 정권 정복 옹호' 사상이며, 이는 아잠(Abdullah Azzam '지구적 지하디즘의 아버지'로 불림)과 오사마 빈 라덴에 영향을 미쳤고, IS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사상을 수용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The Clarion Project 2014, 9-10).
 23) IS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리스트 조직(the richest terror organization in the world)'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테러리스트 국가(alarmingly effective terrorist state)'이며, 석유 수입만 1일 100만~300만\$임. 강탈, 납치, 통제지역으로부터의 세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The Clarion Project 2014, 19). IS는 자산(assets)에서 약 20억\$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CNBC 2014b). 시리아 지역 8개 이상의 유전(석유와 가스) 지대를 통제하며, 1일 3000~7000 배럴 생산하여, 배럴당 26~35\$로 이라크, 레바논, 터키 사업가들에게 밀매함(The Wall Street Journal



영토로 하는 영토적 주권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잔인한 폭력도 불사하고 있다.²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알코올, 담배, 마약을 금지시키며, 히스바(*hisbah*, 순찰)를 하는 등 국가와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The Clarion Project 2014, 14). 또한 기독교인 집은 아랍어로 나자렛 사람을 의미하는 nazarene의 약어인 눈(*nun*)이라 표기해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낼 수 없는 액수인 470\$의 지즈야(*jizya*)를 내든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가, 죽음을 택하든가 등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IS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야지디족이나 앗시리아인 여성들을 지하디스트 전사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노예로 팔아버린다.²⁵⁾

IS는 홍보수단 중의 하나로 영어와 여러 유럽어로 된 *DABIQ*라는 저널을 출판하고²⁶⁾ 풍부한 자금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⁷⁾ ‘왜 *DABIQ*

2014b). 이라크 통제지역에서도 1일 80,000 배럴 생산지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유전지대로부터 1일 수입은 840만\$임(Press TV, 2014). 점령지가 확대될수록 석유수입을 포함하여 재정수입이 확대될 것임.

24) IS가 우선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의 영토는 국명 ISIS, ISIL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라크와 샴(Sham/Levant) 지역, 즉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지역일 것으로 판단됨. 한편 IS는 미국의 중군기자 2명 참수(2014.8.19. James Wright Jim Foley, 2014.9.2. Steven Sotloff), 영국인 NGO활동가 참수(2014.9.16. David Cawthorne Haynes) 및 시리아 난민 지원활동을 했던 영국인 참수(2014.10.3. Alan Henning), 이교도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 학살, 기독교계 소수 종파인 야지디족의 10대 소녀들에 대한 강제결혼·강간·성노예화, 거의 3000년 동안 이집트에 거주해 왔던 토착 아시리아인(Assyrian, 기독교도임)을 모술에서 쫓아내는 등 극단적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음.

25) 14세 이하 젊은 여성은 IS의 지휘관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나이 먹은 여성을 노예로 팔며, 임시 혼인을 하여 섹스를 한 후 그 여성을 다른 전사에게 넘기는 등 잔학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The Clarion Project 2014, 26). 한편 IS는 2014.10.15에 출판된 *ABIQ* ISSUE NO.4에서 “최후심판일 전 노예제의 부활(The Revival of Slavery before the Houe)”이라는 제목으로 노예제 부활을 공식선언함(*DABIQ* ISSUE NO.4 1435, 14-17). IS는 니나와(Ninawa) 주에 거주하고 있던 야지디족(Yazidis)을 언급하면서 “이교도를 노예로 삼고 그 여성들을 첩으로 삼는 것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서도 인정하는 것” 노예화된 야지디족들(Yazidi families)은 이제 IS 군(Islamic State soldiers)에 팔리게 된다” 여러분은 인민을 위한 최고의 인민이다. 여러분은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까지 그들의 목에 체인을 감아서 대리고 갈 수 있다(You are the best people for people. You bring them with chains around their necks, until they enter Islam” [Sahih al-Bukhāri].)”라고 하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함.

26) *DABIQ*는 컬러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50페이지 내외의 전자 저널(digital magazine)임.

27) 이라크 알 까에다와 연계되어 있는 ISIS는 모술시의 북쪽 시내를 점령하면서 미국산 블랙호크

〈지도 1〉 이라크-삼/레반트 지역



* ‘이라크-삼/레반트 이슬람국가’란 오스만제국의 대시리아 지역을 의미하며, 그 영토 내에 칼리파제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왼쪽지도 출처: <http://laymangeopolitics.blogspot.kr/2014/08/israelpalestine-root-of-problem.html> 검색일: 2014.11.22).

인가? 다비끄는 ‘십자군과의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할 상징적인 지역으로 하디스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홍보 목적의 저널 명을 *DABIQ*로 정했다.

*DABIQ*를 출판하는 목적은 ① 무슬림들이 새 칼리프를 돕도록 요청하는 것, ② IS가 시리아 부족들의 지지를 받아 성공하고 있고, 최근의 군사작전 성공, 시아에 대한 자신들이 행한 생생한 폭력장면 뿐 아니라 IS의 적(미국 및 서구 국가들, 이라크 시아파 정부,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 등)이 자행하는 잔학행위를 보도하는 것, ③ IS의 최초 지하디스트에 대한 아라비아 반도 비판가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잠재적 추종자들을 포함하는 다른 지하드 그룹 추종자들에게 칼리파제 국가의 성격, 목적 및 정당성, 모든 무슬림들을 통치하는 정치적, 중

헬리콥터(Black Hawk helicopters)를 노획했고, 5000억 이라크 디나르(4억 2천 900만 \$, 2억 5천 600만 £)를 모술중앙은행으로부터 약탈함. 또한 이라크 유전지대 점령으로 확보한 원유의 밀매 수입금, 요르단, 두바이 등에 피신해 있는 사담 후세인 지지자들의 지원금 등으로 비교적 많은 재원을 갖추고 있음.



교적 권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 ④목시문학에서 찾아낸 다가올 전투의 종말론적 성격, 무함마드의 전통(하디스), 살라피 지하디스트 전서(Salafi-Jihadist strategic literature)에서 찾은 예언(prophecies)과 현대의 전술 소개,²⁸⁾ ⑤ 젊은 지하디스트 전사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젊은이들이 IS에 합류하여 IS를 위해 싸울 것을 선동하는 것 등 다양하다. IS가 출판하는 *DABIQ*를 통해 IS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DABIQ ISSUE NO.1*의 표지에는 ‘다비끄에서 십자군 군대를 불태울 때까지 (until it burns the Crusader armies in Dabiq)’로 표기되어 있으며, 서문에 따르면, ‘다비끄(Dabiq)는 샴(현 레반트 또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알레포의 북쪽 시골에(in the northern countryside of Halab(Aleppo) in Sham) 위치한 지역으로서 하디스(*hadith*)에 말라힘(Malahim)²⁹⁾ 사건의 일부를 묘사하면서 언급된 곳이다. 무슬림과 십자군 간 (종말론적) 대전투 중 하나가 다비끄 근처에서 발생할 것이며,³⁰⁾ ‘이라크로부터 샴까지 신의 축복을 받는 지하드의 확장’ (현재) 다비끄는 십자군의 통제 하에 있음³¹⁾ ‘알라는 사흐와의 반역으로부터 다비끄를 순화시킬 것이며 그 땅 위에 칼리프의 국기를 게양하게 될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DABIQ ISSUE NO.1 RAMADAN 1435*).³²⁾ IS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

28) *DABIQ*에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시, 최초 지하디스트 반란의 수괴인 자르카위의 전술이 많이 소개됨.

29) 말라힘은 영어로 최후전쟁인 아말게돈(Armageddon)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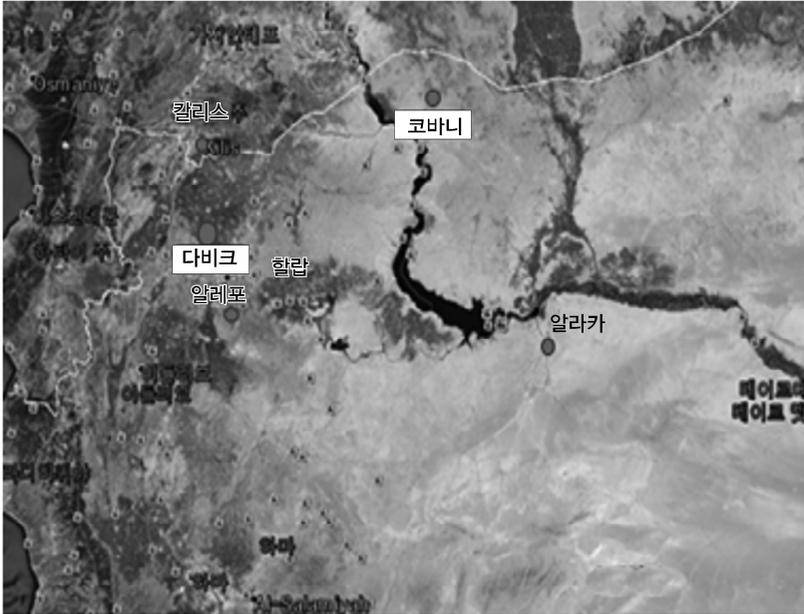
30) 이들이 사용하는 십자군, 로마(Rome)는 일반적으로 서구를 의미함. 자르카위는 다비끄에서의 약속된 승리는 세계 정복의 첫 단계라고 주장함.

31) IS는 2014년 8월 초에 다비끄를 점령했으며, 그들은 ‘성공한 종교전투(triumphant religious battle)’라고 주장함.

32) *DABIQ*는 이슬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도가 1435로 표기되어 있음. 이슬람력 1435년은 서력 2014년임. 또한 *DABIQ*는 각 권마다 제목이 있으며, 제1권은 라마단(RAMADAN), 제2권은 홍수(THE FLOOD, 홍수는 성경에 나오는 ‘Noah and the Ark’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여기서 Ark는 ‘새로운 칼리파제를 의미함), 제3권은 히즈라에로의 불리움(A CALL TO HIJRAH), 제4권은 실패한 십자군(THE FAILED CRUSADE), 제5권은 머무름과 팽창(REMAINING AND EXPANDING), 제6권은 와지리스탄의 알-까이다: 내부로부터의 증언(AL-QA’IDAH OF WAZIRSTAN: A TESTIMONY FROM WITHIN)임. 제6권의 표지제목 중 ‘Waziristan’은 ‘Wazir의 땅’을 의미하며, 파키스탄 북서쪽, 즉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15,000km²의 영토로



〈지도 2〉 Dabiq의 위치



* ‘다비크는 할랍(Halab, 알레포) 북쪽’ 시리아-터키 국경 근방이며, 우리나라 김 군이 행방불명된 터키의 칼리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함.

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UN과 아랍연맹에서 공허한, 건성의, 그리고 위선적인 비난과 애도의 말만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DABIQ ISSUE NO.2* 1435, 4).

*DABIQ ISSUE NO.1 ~ DABIQ ISSUE NO.6*의 목차 맨 위에는 이라크 알-까에다의 설립자인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의 말이 인용되고 있다.³³⁾

주민의 대부분은 파쉬툰족(Pashtuns)임. 한편 IS는 1516년에 오스만제국과 맘룩조(Mamluks) 간에 다비크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 결국 오스만 제국이 승리하면서 이슬람 칼리파제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함.

33)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 조직이 다른 지하디스트 그룹,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의 ‘알-까에다’나 시리아의 ‘안-누스라 전선(Jabhat al-Nusra)’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불꽃이 이라크에서 이곳으로 밝게 비쳤으며, 그 열기는 — 알라의 허용으로 — 다
비끄에서 십자군 군대를 태워버릴 때까지 계속 강렬해질 것이다.”

- Abū Mus‘ab az-Zarqāwī” (*DABIQ 1,2,3,4* 1435; *DABIQ6* 1436).

IS는 자신들의 행위가 ‘반서구, 반이스라엘, 반 아랍세속국가(반 아랍연맹 회
원국) 투쟁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2. IS-부족 연합 추구

IS의 이념은 부족주의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점령지 부족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ABIQ ISSUE NO.1*에는 ‘Halab,
Tribal Assemblies’라는 소제목 하에 IS와 주요 부족 간의 연합을 언급하고 있다
(*DABIQ ISSUE NO.1* 1435, 12~15).³⁴⁾

“IS는 무슬림들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이맘(지도자) 아래 묶으며,
예언자적 칼리프제(prophetic Khilafah)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
경 내 부족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왔던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족포럼
(tribal forums)에 참여하고, 부족지도자들의 관심을 구애하며, 그들의 충성서약
(bay‘ah)을 수용하기 위한 IS의 실천으로 정규적으로 만나고 있다.”(*DABIQ ISSUE
NO.1* 1435, 12).

‘지난 달(2014년 5월) 다음과 같은 부족 대표들과 회합했다’라고 하는 가운
데, 알부 카미스(Albu Khamis), 바누 사이드(Banu Sa‘id), 알-아운(Al-‘Awn), 그
리고 알-카프사(Al-Khafsah)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부족들을 대표하여 알 가님
(Al-Ghanim) 부족 대표들을 열거하고 있다(*DABIQ ISSUE NO.1* 1435, 12).

부족 회의에서 부족문제(Tribal Affairs)의 회장은 ‘IS의 사명(mission)은 지

34) Halab(حلب)은 시리아 북쪽 지역에 위치한 알레포(Aleppo)를 말함.

〈그림 1〉 IS 점령지의 주요 부족포럼(2014. 5)



자료: DABIQ ISSUE NO.1 1435, 14

방적,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것'이라고 하고, '샤리아를 이행하고, 종교를 세우며, 미덕을 증진시키고 악덕을 막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니나와주(Wilayat Ninawa)의 해방, 순나 신봉(أهل السنة, Adherents to the Sunnah), 투옥자들의 석방, 모술(Mosul) 공항과 말리키 군 기지(Maliki's army bases)의 통제, 사이크스-피코 국경(Sykes-Picot borders) 해체 및 이라크-삼 간 도로 개통 등 최근의 승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승리의 유산, 특히 IS의 설립과 그 영토의 확대를 알린다.”고 선언했다. 또한 소문으로 떠도는 IS 통제지역으로부터의 철수와 퇴각, 부족들을 버리거나 정권에 넘기는 것, 극단주의, 추방, 축출(takfir, تكفير), 가혹 행위(harshness), 제명(expulsion) 행위 등 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그는 IS가 제공하게 될 다음과 같은 이익들, 즉 ①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권리와 재산을 되돌려줄 것, ②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수백만 달러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 IS 당국(Islamic State's authority) 통제 하에서 안보와 안전을 보장할 것, ④ 시장에서 음식물과 일용품들, 특히 빵 구입을 보장할 것, ⑤ 범죄율을 낮출



것, ⑥ IS와 시민 간 관계를 활발하게 할 것 등을 약속받았다. 회합 기간 동안 부족 대표들은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자카(zakah, زكاة) 모금³⁵⁾ 및 그것을 주 전체의 자카 사무국에 보내는 것, ② 자카나 사다까(sadaqah, صدقة, voluntary charity)의 분배를 필요로 하는 고아, 과부, 필요자들의 이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③ 젊은이들이 IS의 고위직(ranks)에 합류하도록 고무하는 것, ④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나 자유시리아군(FSA)으로부터 획득한 무기를 되돌려줄 것, ⑤ 붙잡히기 이전에 IS에 반대하여 무기를 지닌 사람들이 반성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DABIQ ISSUE NO.1 1435, 13-14). 대신에 IS는 아랍부족들(Arab tribes), 특히 바누 사이드 부족에게 그들의 지지, 충성, 충고, 기원(du'a', supplication)과 그들의 부와 아들, 남성, 무기, 힘(strength), 의견을 요구하고, 그들 자녀와 형제들이 IS의 군(military body)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무함마드가 움마, 즉 원시 형태의 칼리파제 국가를 건설한 이후, 이슬람 칼리파와 부족 간에는 분쟁과 연합이 반복되었다. IS와 IS 점령지의 부족 간 관계도 이러한 오랜 역사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IS는 점령지 주요 부족의 지원을 필요로 했고, 주요 부족은 자기 부족의 생존과 IS 내에서의 정치엘리트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3. IS 최종 목표로서의 칼리파(Khilafah)

DABIQ ISSUE NO.1에는 IS의 제4대 지도자 알-바그다디(Amirul-Mu'minin Abu bakr al-Husayni al-Qurashi al-Baghdadi)가 2014년 라마단 첫날(6월 28일이나 6월 29일)에 선언한 '칼리파제 선언(Khilafah Declared, announcements of

35) 자카(زكاة)는 순화(purification), 성장(growth), 축복(blessing)의 의미를 가짐. 그러나 단순한 자선이나 주는 행위, 세금이 아니고 단순한 친절함의 표현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 또는 그 이상의 것임.

the Caliphate)’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³⁶⁾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어라. 여러분은 하나의 국가, 칼리파제 국가(Khilafah)를 가지고 있다. 칼리파제 국가는 여러분에게 위엄, 힘(might), 권리, 지도력을 되돌려줄 것이다. 그것은 아랍과 비아랍, 백인과 흑인, 동양인과 서양인 모두가 형제가 되는 그러한 국가이다. 그것은 카프카스인(Caucasian), 인도인, 중국인, 샴인(Shami), 이라크인, 예멘인, 이집트인, 마그레브인(Maghribi),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오스트레일리아인이 함께하는 하나의 칼리파(a Khilafah)이다. 알라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알라의 은혜(grace)로 형제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참호(trench) 안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호위해주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하나의 국기와 목표 하에, 하나의 천막 안에 그들의 피는 섞이고 하나가 되어, 이러한 충실한 형제애의 축복(blessing)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왕들이 이러한 축복을 맛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버릴 것이고, 이러한 영광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과 감사는 알라의 덕택이다.”(DABIQ ISSUE NO.1 1435, 7).³⁷⁾

DABIQ ISSUE NO.1의 표제 제목도 ‘칼리파제 국가의 복원(The Return of Khilafah),’³⁸⁾ ‘칼리파제가 선언되었다(Khilafah Declared)’이며(DABIQ ISSUE NO.1 1435, 6),³⁹⁾ ‘이슬람 국가 보도(Islamic State Report)’ ‘이마마의 개념은 이

36) 1435H, 라마단 첫날에 IS의 대변인 아부 무함마드 아드나니 아쉬샤미(Shaykh Abu Muhammad Adnani ash-Shami)는 ‘칼리파제 국가의 복원(revival of the Khilafah)’을 선언함.

37) 2014년 중반에 1만 2천여 명의 전사(지하디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 중 일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유입되었음. 또한 IS는 여성 지하디스트 부대(a unit of female jihadist fighters)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함(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8.13.). 한편 쿠르드 여성 전사들(Kurdish Women Warriors)이 IS군에 대해 전투에 참여하기도 함(Warrior Publications 2014.9.5).

38) 2012년 3월 18일 급진적인 파키스탄 극단주의 그룹인 파키스탄국가해방당(Hizb-ut Tahrir Willayah Pakistan = The Liberation Party of State of Pakistan)이 그들의 백서 제목을 ‘The Return of Khilafah’라고 했으며, 해방당은 칼리파제국가는 파키스탄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해방당은 게릴라 조직은 아니나 그들의 담론은 아랍 지하디스트 이념과 유사함(Zahid 2014; Hizb-ut Tahrir의 “The Return of Khilafah”의 온라인 버전은 www.hizb-ut-tahrir.org/PDF/EN/en_books_pdf/PK_Return_of_the_Khilafah_English_OK_rev.pdf 참조.

39)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 Baghdadi)는 라마단 시작일인 2014년 6월 28일(또는 6월



브라힘(아브라함)의 밀라로부터(The concept of Imamah<leadership> is from the millah<path> of Ibrahim)'라는⁴⁰⁾ 기사 제목들을 통해(*DABIQ ISSUE NO.1* 1435, 20) 자신들이 칼리파제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Millah Ibrahim'은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Palestinian-Jordanian) 이데올로그인 알 마끄디시(Abu Muhammad al-Maqdisi)가 쓴 매우 영향력 있는 1984년 지하디스트 소책자(jihadist tract)의 아랍어 제목이기도 하다. 알 마끄디시는 자르카위의 교사였으나 자르카위의 극단적 폭력을 보고 그와 헤어졌으며, 알 마끄디시는 알 자와히리와 알 까에다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⁴¹⁾ I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배교에 대한 알 마끄디시의 지하디스트 견해에 대해서는 추종하지만, 이론에 그치지 않고 폭력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

IS는 '칼리파제의 전 지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⁴²⁾ 세계 모든 무슬림들, 특히 의사, 엔지니어, 학자, 전문가들의 히즈라(hijrah), 즉 'IS로의 이주'를 선동하고 있다(Gambhir 2014, 4).⁴³⁾

출간된 모든 *DABIQ*의 첫 페이지에는 바그다드가 비전투 개인들(non-militant

29일)에 IS, 칼리파제 국가 수립을 선언함.

40) 이맘마(Imamah)는 이맘제, 즉 칼리파제를 의미하고, 밀라(Millah = Path)의 본래의 뜻은 '같은 땅에서, 같은 인종적 기원(same origin), 공통의 역사, 전통, 언어를 가진 모든 사람'의 의미, 즉 민족(na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학자들은 '종교'와 '이슬람법(shari'ah)'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 IS는 '길, 방향(path)'의 의미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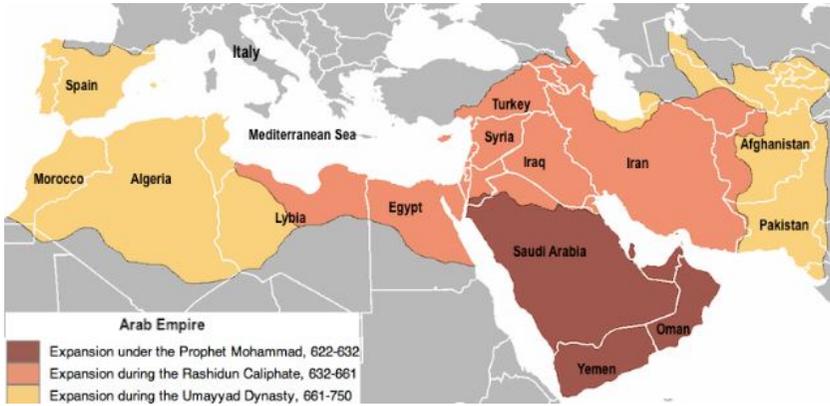
Millah Ibrahim(Abraham)은 '종교공동체' 또는 '족장 이브라힘(아브라함)과 동료가 되는 길'을 의미함.

41) 알 마끄디시는 자신의 저서 *Millah Ibrahim*에서 사우디 왕가의 통치를 공격했음. 알 마끄디시의 저술들은 1979년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Grand Mosque)를 폭력적으로 탈취했던 폭동 주도자 주하이만 알 우타이비(Juhayman al Utaybi)에게 영향을 미쳤고, 폭동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의 일부가 아라비아반도 알 까에다(AQAP)에 합류했음(Wagemakers 2012).

42) IS는 단계적으로 이라크-시리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 등 전 순니파 지역, 전 중동 아랍지역, 이슬람제국 시대의 영토, 그리고 세계적 지배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3) 알 까에다가 2010년에 발행하기 시작한 영어 저널 *Inspire*는 특히 '서구를 공격하려 하는 서구에 기반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인 외로운 늑대들(lone wolves Western-based terrorists to attack the West)'을 고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음(Gambhir 2014, 1). IS도 *DABIQ*를 통해 '외로운 늑대들(lone wolves)'이라는 잠재적 지하디스트들을 인적 자원으로 규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지도 3〉 이슬람제국의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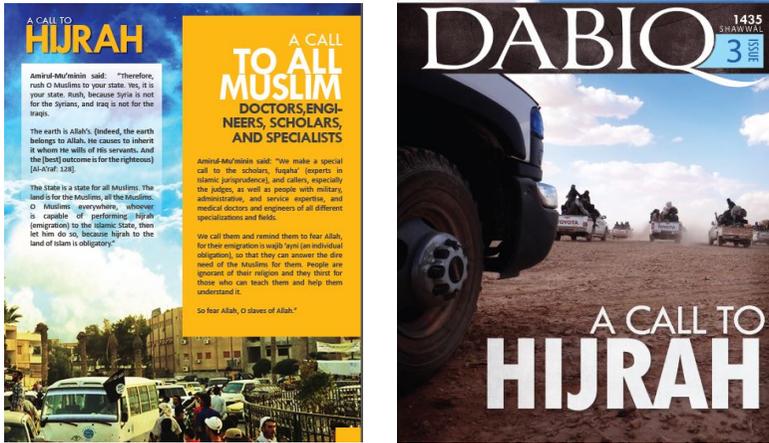
자료: <http://www.nuttyhistory.com/biggest-empires.html>

individuals)의 'IS에로의 이주'를 요청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DABIQ ISSUE NO.3*의 표지 제목은 '히즈라(이주)에로의 부름(A Call to Hijrah)'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 프랑스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IS의 전사가 되기 위해 IS 통제지역으로 이주했다.⁴⁴⁾

또한 *DABIQ*의 각 권의 목차에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란 용어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Islamic State Reports' 'Islamic State News' 'The Islamic State in the Words of the Enemy' 등의 제목이 있다.

44) 2014.9.12(현지시간) CNN은 CIA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IS의 전투원은 20000~31000명이라고 주장하고, IS에서 활동하다 이라크 정부군에게 체포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10대 하마드 알 타미미는 자신이 교육과 훈련 도중 만난 신입대원들 250명 중에는 "한국(Korea),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레바논,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했다"라고 증언함. 2014년 10월 초 경에 80여 개국으로부터 IS로 유입된 1만 5000여 명의 외국인 용병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구 국가로부터 약 2000명(프랑스로부터 700명, 영국으로부터 500명, 독일로부터 400명)이 IS의 전투병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도됨(<http://edition.cnn.com/2014/09/11/world/meast/isis-syria-iraq/> 검색일: 2014.11.18; Oakford 2014; <https://news.vice.com> 검색일 2014.11.18.). 미국 출신 IS 전사도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인남식 2014, 10).

〈그림 2〉 히즈라를 요청하는 DABIQ



출처: DABIQ ISSUE NO.1 1435, 11; DABIQ ISSUE NO.3 1435 표지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IS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십자군으로 상징되는 미국 등 서구의 군대에 대항하는 지하드를 통해 정복한 곳에⁴⁵⁾ 칼리파제 국가, 즉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슬람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holistic state-building project)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직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마지막으로 IS로 국명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했는데, 사실 IS는 학문적으로 국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는 국가(state)-사회(society)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국가(state)의 성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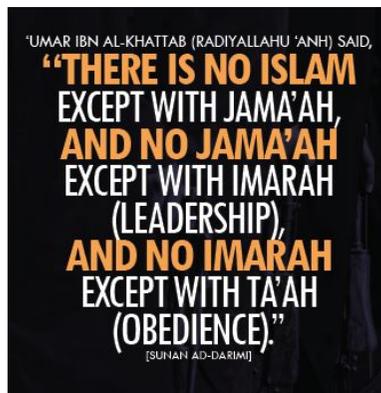
45) DABIQ에 의하면 IS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비드(2014.8월 점령함)와 이라크-시리아 지역을 통제 할 것이며, 자신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worldwide domination)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홍보하고 있음(Gambhir 2014, 3). IS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정파 간 전쟁을 유도하고 가능한 곳, 가능한 때에는 시아파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순니파 무슬림들을 IS군으로 끌어들이고, 중기적으로 이라크-시리아 영토를 통제하고, 이웃 순니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으로의 통제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임(The Clarion Project 2014, 14-15).



동 아랍국가들의 사회는 이슬람 사회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슬람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이며, ‘국가의 이슬람화’가 달성되었을 때, 그 국가를 이슬람국가 (Islamic state)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우리의 국가 성격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capitalist state)’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스스로를 국가라고 주장하고 I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슬람사회인 아랍국가들의 ‘국가(state)’를 이슬람화시켰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다르 알 이슬람’의 중동 및 세계적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정상률 2014, 5). IS가 정부형태를 칼리파(Khilafah), 즉 ‘이슬람 칼리파제,’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이슬람화(Islamization of state)’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리파제나 이맘제란 이슬람국가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칼리파제에서 최고 통치자 칼리프는 절대권한을 가진다. DABIQ에서도 칼리프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권하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자마아⁴⁷⁾ 없이

<그림 3> 칼리프에 대한 절대 복종 요구



출처: DABIQ ISSUE NO.1 1435, 30

46) 이슬람국가론에 대해서는 정상률의 『이슬람국가론과 지대국가론』(2013) 참조.

47) 이슬람 공동체. 움마(ummah)로 표현되기도 함.

는 이슬람이 없고, 이마라(지도력, leadership) 없이는 자마야가 없으며, 타흐(복종) 없이는 이마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슬람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고, 따라서 정치 리더십과 종교 리더십을 분리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체주의 이념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이슬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그룹과는 구별해야 한다. 정치이슬람 그룹은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는 칼리파제의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참수, 학살, 인신매매, 테러, 전쟁, 노예화, 성적 학대 등 폭력적 수단도 서슴없이 사용했다.

근대 이후의 주권적 영토국가는 획정된 특정 영토 내에서 권위(authority)⁴⁸⁾ 및 강제력(coercion)의 독점,⁴⁹⁾ 외적 승인이⁵⁰⁾ 있어야 한다. 2014년 11월 현재 IS는 영토적 실체(territorial entity)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순니 아랍인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테러리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통합된 군사력(concentrated force)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토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Friedman 2014). 그러나 IS는 아직 주권적 영토국가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이슬람화된 주권적 영토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극단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48) 권위란 규칙 제정권(rule-making), 즉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정치적 실체(the political being)를 규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함.

49) 국가는 조직화된 주요 폭력수단을 배타적으로 보유함.

50) 주권은 국가의 부속물이 아니라 타국이나 타국 통치자들이 주권을 국가에 부속시킨 것임(Ashley 1984, 239, 259, 269, 273; Miller 1984, 1986).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Ashley는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가 공동체', Meyer는 '세계적인 초국 엘리트들의 정치체(world polity of transnational elites)', Bull, Watson, Strang는 '주권체계(regime of sovereignty)를 구성하는 유럽 등의 강대국들'이라고 주장함. 오늘날 UN 총회의 다수결 및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주권이 인정되고 있음.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 경우, 2012년 11월 29일 유엔 총회는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로 PA를 '옵서버 단체(observer entity)'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승격됨. 1974년 당시 망명 정부 역할을 하고 있던 PLO는 아랍 연맹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유일 대표'로 인정받았으나, 같은 해 UN에서 '옵서버 단체' 지위만을 얻음.

〈그림 4〉 IS의 조직도



테러단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9월 19일 전 세계 순니 무슬림 학자 126명이 서명하여 알-바그다디로 알려져 있는 알-바드리(Ibrahim Awwad Al-Badri, alias ‘Abu Bakr Al-Baghdadi’)와 그들이 선언한 IS의 전사와 추종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학자들은 IS의 잔인한 행위와 이슬람법에 대한 잘못 해석 등 24가지를 들어 비판했다.

그 중 22번째는 ‘이슬람에서는 모든 무슬림의 동의 없이는 칼리파제(caliphate) 선언을 금지한다’는 것이었고, 24번째는 ‘예언자의 사망 이후, 이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곳으로 이주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⁵¹⁾

51) 24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모든 필요한 학식 없는 파트와 금지, 2. 아랍어 마스터 없는 법규칙 적용 금지, 3. 샤리아의 과도한 단순화, 기존 이슬람 과학 무시 금지, 4. 어떤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 수용, 5. 법 적용 시 현실무시 금지, 6. 무죄인 사람 살해 금지, 7. 특사, 대사, 외교관, 저널리스트, 원조 노동자(aid workers) 살해 금지, 8. 이슬람에서의 지하드는 방어전쟁임, 9. 본인이 비무슬림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비무슬림이라고 선언하는 것 금지, 10. 기독교인이나 어떠한 경전의 백성(People of the scripture)에 대한 해나 학대 금지, 11. 야지디(Yazidis)를 경전의 백성으로 간주해야 함, 12. 노예제 재도입 금지, 13. 강제 개종 금지, 14. 여성권리 부정 금지, 15. 어린이 권리 부정 금지, 16. 정의와 자비를 염수하는 올바른 절차 없는 법적 처벌(hudud) 행위 금지, 17. 고문 금지, 18. 사체훼손 금지, 19. 사악한 행위를 신의 뜻으로 돌리는 것의 금지, 20. 여러 예언자와 그 동료들의 무덤과 성묘 파괴 금지, 21. 통치자에 의해 분명한 불신(자)이며 백성에게 기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외의 이유로 무장반란을 일으키는 것의 금지, 22.



IS가 히즈라(이주) 요구와 IS를 건설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IS가 UN에서 주권 국가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란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샤리아(이슬람법)를 근거로 하여 건설된 근대 형태의 주권적 영토국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국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편, IS의 뿌리는 1999년 알 자르카위가 건설한 자마아트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جماعة التوحيد والجهاد, Jama'at al-Tawhid wa-al-Jihad, Society for Monotheism and Jihad, 유일신과 성전 그룹, JTJ)라는 정치이슬람 조직이다.⁵²⁾ 이 조직은 요르단 왕정이 비이슬람적이라는 이유로 전복할 목적으로 1999년 요르단 살라피 지하드주의자(Salafi Jihadist)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Abū Mus'ab az-Zarqāwī)에 의해 창설되었으나 IS의 주요 조직원은 사담 후세인의 잔당인 순니파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조직이다. 공식 명칭은 Tanzim Qaidat al-Jihad fi Bilad al-Rafidayn이지만, '이라크 알 까에다(Al-Qaeda in Iraq)'로 더 잘 알려져 있다.⁵³⁾ 자르카위는 2004년 10월에 오사마

모든 무슬림의 동의 없는 칼리파제 선언 금지, 23. 자신의 국가에 대한 충성 허용, 24. 예언자의 사망 이후, 어떤 사람을 어떠한 곳으로 이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52) 이 조직의 국기는 다음과 같았음.



'알라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문구가 있음. IS의 국기에는 '알라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와 무함마드의 인장으로 알려진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가 분리되어 있음.

53) 이라크 알 까에다는 2011년 미군이 철군하면서 이라크의 시아파인 누리 알-말리키(Nuri al-Maliki) 정권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다가 명칭을 '이라크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ISI)'로 변경함. 2012년 시리아 내전의 격화를 틈타 Kaplan이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나쁜 반군(bad rebel)'에 속하는 '안 누스라 전선(Jabhat al Nusra)'에 편입되어 반 아사드 무장투쟁을 주도하면서 다시 명칭을 '이라크-시리아(삼 또는 레반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Syria/al-Sham/Levant, ISIS 또는 ISIL)'로 변경함. ISIS의 강압적이고 잔학한 행위에 대한 시리아 반군 내부의 불만이 폭증하면서 안 누스라 전선도 ISIS와 결별을 선언함. 2014.6.29.(라마단 첫 날),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주도로 ISIS을 IS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이라크 북서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해 가고 있음.

빈 라덴에게 충성서약을 했다. 그는 소련-아프간 전쟁 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으나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헤라트(Herat) 근처의 이슬람군 훈련캠프(Islamic militant training camp)로 돌아가 훈련을 받았다.⁵⁴⁾ JTJ의 정치적 목적은 ① 이라크에서 연합군을 철수시키는 것, ② 이라크 임시 정부를 와해시키는 것,⁵⁵⁾ ③ 점령정권에 부역하는 자를 암살하는 것, ④ 시아파의 살인조 활동(death-squad activities) 때문에 시아파를 제거하고 시아파 시민군을 패배시키는 것, ⑤ 지속적으로 하나의 순수 이슬람국가(a pure Islamic state)를 건설하는 것이다.⁵⁶⁾ 이 조직은 반 이라크정부, 반서구, 반시아,⁵⁷⁾ 반공산주의,⁵⁸⁾ 순니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조직한 알 까에다가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했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 알 까에다 세력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전쟁 부산물’이지만 알 까에다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⁵⁹⁾ 제4대 지도자 아부 바크르 바그다디는 알 까에다에 충성서약하는 것을 부정했고, 오히려 경쟁 조직(rival organizations)으로 간주하고 있다(Gambhir 2014, 2; *DABIQ ISSUE NO. 1*, 1435, 34-40).

이라크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일신과 성전’ 그룹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이라크전이 진행 중이던 2004년 6월 22일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를 피

54) Jama'at al-Tawhid wal-Jihad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 참조함(http://en.wikipedia.org/wiki/Jama'at_al-Tawhid_wal-Jihad 검색일: 2014.11.4).

55) 순니파 중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시아파 중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라크 알 까에다는 ‘시아파 정부 전복’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조직원을 규합함.

56) 이는 2005년 7월 9일 아부 모함매드(Abu Mohammad)가 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에게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임. (https://web.archive.org/web/20120119014714/http://www.dni.gov/press_releases/letter_in_english.pdf. 검색일: 2014.11.4.).

57) IS는 점령지 모술 시에 있는 Husayniyyatul-Qubbah 사원(시아파 사원), 탈 아파르(Tal Afar) 시에 있는 Husayniyyat Jawwad 사원(시아파 사원), 모술의 소녀분묘(Grave of the Girl), Ahmad Ar-Rifa'i의 무덤과 사당(shrine)을 폭파시키고 그 사진을 공개함(*DABIQ ISSUE NO.2* 1435, 14-17).

58) IS는 공산주의 정치조직인 PKK(Kurdistan Workers' Party), 마르크시스트 쿠르드인 정치조직인 PYD(Democratic Union Party)와의 전투를 강조하고 있음(*DABIQ ISSUE NO.2* 1435, 12-13).

59) 2014년 2월 3일 알 까에다와 ISIS는 공식적으로 결별함(CNN 2014.9.12).



랍하여 참수했던 바로 그 조직이다. ‘유일신과 성전’은 시아파 중심의 새로운 이라크 국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혼란 상황, 이라프의 봄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내전 상황을 활용하여 세력을 확대해 왔다. 또한 이들은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주의’ ‘반서구, 반기독교, 반세속주의’ 이념과 ‘공포감’ ‘풍부한 자금’ ‘SNS 및 저널을 통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세를 확대시켜 왔다.

4. IS의 칼리파 구축 로드맵

“칼리파제 국가(Khilafah, Caliphate) 구축 목표는 금세기 지하드 부활(revival) 이후 무자헤딘들의 마음을 지배해온 것이었다.”(*DABIQ ISSUE NO.1* 1435, 34). 그리고 ‘알라의 의지(Allah wills)’에 따라 예언자 지위도 존재할 것이고, 예언자의 방식에 따른 칼리파제 국가(Khilafah on prophetic methodology)도 존재할 것이며, 거친 왕권(harsh kingship)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IS의 궁극적 목표는 예언자 방식의 칼리파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DABIQ ISSUE NO.1*에는 ‘이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y)로 알려진 칼리프 이브라힘(Ibrahim)의 권위의 기반에 대해 비교적 길게 설명되어 있다. 바그다디는 ‘정치와 종교 모두에서 모든 무슬림의 절대통치자(absolute ruler)이며, 현재의 IS(Islamic State)는 진정한 이맘(Imamah)이거나 리더십의 표현(manifestation of leadership)’이라는 것이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모든 무슬림들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바그다디(Imamul-Muslimin and AmirulMu’minin — the Khalifah — Abu Bakr al-Husayni al-Baghdadi)에게 충성을 맹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이다.”(*DABIQ ISSUE NO.1* 1435, 40).

*DABIQ*에서는 20세기 좌익과 21세기 지하디스트 그룹들이 사용한 마오사상(Maoist ideas)에 기초한 3단계 게릴라전 구조(three-stage guerrilla warfare structure)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⁶⁰⁾

3단계는 ① 손상(nikayah=injury or terrorist tactics),⁶¹⁾ ② 만행(tawahhush=mayhem or savagery), ③ 합병(tamkin=consolidation or establishing a state)이다(DABIQ ISSUE NO.1 1435, 36-37).⁶²⁾

첫 단계에서는 중앙정부를 파괴하고 가능한 중앙정부가 목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혼란(chaos)'을 조성한다. 혼란은 우상숭배자들이 수십 년 동안 통치해 왔던 무슬림 땅에 현존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안정성을 우상정권(taghut regime, idolatry regime)이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 즉 혼란이 '만행'의 단계라고 할 정도로 불안정해지면 무자헤딘은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거나 또는 나지(Nazi)가 저서 *Iclarah al-Tawahhush*(Administration of Savagery)에서 '만행의 행정(administration of savagery)'이라고 불렀던 원시정부(primitive government) 상태에 빠지게 된다.⁶³⁾

“이러한 공격, 혼란 야기, 원시정부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십자군이 ‘순니 삼각지대(the Sunni Triangle)’라고 했던 지역의 정권이 점점 붕괴되게 만들었다. 그 때 무자헤딘은 재빨리 이 빈 지역에 진입하여 바그다디(Amirul-Mu’minin Abu Umar al-Husayni al-Baghdadi(rahimahullah)의 지도 하에 이라크 이슬람국가를 선언했다. 이는 옴마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것이었다.”(DABIQ ISSUE NO.1 1435, 38).

“그러므로 최대의 혼란을 야기할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다른 배경을 가진 배교자를 목표로 함으로써, 무자헤딘은 이라크를 끊임없이 불안정과 전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어떠한 배교자 그룹이 안전의 순간을 즐기는 것을 결코

60) 지하디스트 정치,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ichael W.S. Ryan의 *Decoding al-Qaeda's Strategy: The Deep Battle Against America*.

61) 적의 사망, 상처, 손상을 목표로 함.

62) 3단계 게릴라전 구조는 5단계 칼리파제 국가, 즉 이슬람국가 건설 로드맵의 3,4,5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63) '무자헤딘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배교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는 이라크 주둔 십자군을 매일 공격한다'고 주장(DABIQ ISSUE NO.1 1435, 37). 이는 시아 이라크 정부를 '원시정부' 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DABIQ ISSUE NO.1* 1435, 37).

IS는 *DABIQ*에서 이라크 알-까에다의 지도자였던 알-자르카위가 이라크에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공격을 시도하여⁶⁴⁾ 알-자르카위의 후계자인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Abu Omar al-Husayni al-Baghdadi)가 지하디스트 행정지역(jihadist-administered areas)을 탐킨(tamkin, consolidation), 즉 ‘통합’을 통해 이라크 이슬람국가(ISI)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르카위의 후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자신도 이라크, 시리아 지역을 통합하여 칼리파(khilafah), 즉 칼리파제의 이슬람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⁶⁵⁾

*DABIQ ISSUE NO.1*에는 ‘자르카위가 2000년 초에 이라크에 구축하려고 했던 칼리파제 국가(Khilafah) 건설 5단계’가 소개되고 있다. 이는 무자헤딘(mujahidin)이 칼리파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로드맵이 되었다. 칼리파제 국가 건설 5단계는 <그림 5>와 같다(*DABIQ ISSUE NO.1* 1435, 38).

IS는 칼리파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 중 첫 단계인 히즈라(이주)에 대해 *DABIQ*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히즈라는 지하드가 있는 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DABIQ ISSUE NO.2* 1435, 18). IS는 히즈라를 통하여 무자헤딘(mujahidin), 즉 ‘알라의 길에서 투쟁하는 무슬림’ ‘이슬람 전사를 응원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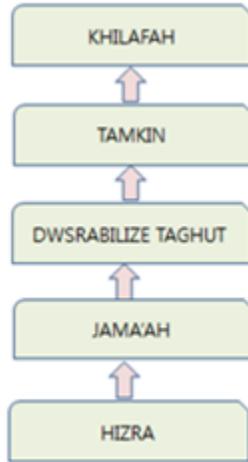
*DABIQ ISSUE NO.3*의 표지 자체가 ‘히즈라에로의 부름(A Call to Hijrah)’이고,⁶⁶⁾ 내용의 제목들은 ‘치열한 전투 이전의 이슬람국가: 전투의 땅으로 이주(The Islamic State before al-Malhamah: the Immigrant to the Land of Malahim)’

64) 이라크 배교자 군대(군, 경찰, 정보부), 라피다(Rafidah, 시아 시장, 사원, 시민군), 쿠르드 세속 주의자(Barzani and Talabani partisans) 등에 대한 공격.

65) *DABIQ*에서는 자르카위의 ISI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업적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에 ISI 설립에 대해 약간의 모순이 보인다.

66) 히즈라는 622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으로, ‘히즈라에로의 부름’이란 일종의 잠재적 IS 응원 요원들에 보내는 ‘개를 부르는 호르라기(dog Whistles)’ 신호임.

〈그림 5〉 자르카위의 칼리파제국가 설립 로드맵



출처: DABIQ ISSUE NO.1 1435, 38

- 1단계: 이주(Hizrah= emigration)는 이슬람국가로의 이주(여행)
- 2단계: 공동체형성(Jama' ah = congregation), 합류(join up)
- 3단계: 우상 파괴(destabilize of taghut), 더 먼 곳으로의 확장 목표를 위해 폭군(tyrant)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협조함
- 4단계: 영토 합병(tamkin = consolidation), 새 지역을 합병함
- 5단계: 칼리파제 국가(Khilafah = Caliphate) 건설, 새 지역으로 칼리파제 확장

‘부족적 끈을 끊은 사람들(Those who Break off from Their Tribes)’ ‘삼은 전투의 땅(Sham is the Land of Malahim)’ ‘삼으로의 이주는 이브라힘의 종교로부터(Hijrah to Sham is from the Millah of Ibrahim)’ ‘이슬람국가에서의 종교적인 초대와 책무(Da’wah and Hisbah in the Islamic State)’ ‘히즈라는 위선으로부터 진심으로(Hijrah from Hypocrisy to Sincerity)’ ‘지하드 없이는 삶이 없고, 히즈라 없이는 지하드란 없다(There Is No Life without Jihād and There Is No Jihād without Hijrah)’ ‘히즈라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대한 충고(Advice for Those Embarking upon Hijrah)’ 등 히즈라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DABIQ ISSUE NO.3 1435).

*DABIQ ISSUE NO.2*에서는 점령지인 할랍주(Wilayat Halab), 키르쿠크주(Wilāyat Kirkūk), 안바르주(Wilāyat Al-Anbār), 살라딘주(Wilāyat Salāhuddīn), 아르-라까주(Wilāyat Ar-Raqqah), 알-바라카주(Wilāyat Al-Barakah), 니나와주(Wilāyat Nīnawā), 홈즈(Wilāyat Homs) 등에서의 활약상을 사진으로 홍보하고 있다(*DABIQ ISSUE NO.2* 1435, 33-42). *DABIQ ISSUE NO.4*에서는 알-푸라트주(Wilāyat al-Furāt), 알-팔루자주(Wilāyat al-Fallujah), 알-주누브주(Wilāyat al-Junub)에서의 활약상을 사진과 글로 홍보하고 있다(*DABIQ ISSUE NO.4* 1435, 18-20). 이러한 홍보 사진들은 새로 통합된 지역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착착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다리 복구, 전기시설 복구, 거리 청소, 노인 보호, 환자 치료, 점령지 체크포인트, 포로, PKK와의 전투와 PKK 희생자 등의 사진들을 게재함으로써 IS의 적에 대한 공포심과 IS 무자헤딘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려고 하고 있다(*DABIQ ISSUE NO.4* 1435). *DABIQ ISSUE NO.5*에서도 아라비아 반도, 예멘, 시나이, 리비아, 알제리의 무자헤딘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서약을 했음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그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알-안바르주(Wilāyat al-Anbar)와 팔루자(ĀMIRIYYAT AL-FALLŪJAH)에서의 전투장면 사진, PKK 지역(PKK compound)에서 찾아낸 담배와 마약을 불태우는 사진과 쿠르드인들의 충성서약 사진, 새로 제조한 길라파의 동전 사진 등을 게재했다(*DABIQ ISSUE NO.5* 1435).

〈그림 6〉 IS가 주조한 동전



자료: *DABIQ ISSUE NO.5*, 1436, 18

IS는 IS의 화신인 이라크 알 까에다(al-Qaeda in Iraq, AQI)가 ‘이라크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of Iraq, ISI)를 구축했다’고 강변한다. ISI는 현대 칼리파제 국가 건설을 위한 모델로서 조건을 갖추었고 그만큼 기여했다는 것이다. IS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 까에다를 ‘니카야 공격 국면에서 동사된 것’이고, ‘권력 획득을 타부시 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무자헤딘에게 움마의 업무를 맡기기 보다는 어떠한 위선자(munafiq)가 손을 뻗쳐 움마를 파괴시킬 수 있는 움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비난했다(DABIQ ISSUE NO.1 1435, 38). IS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아프간 알 까에다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만 성취했으며, 이 조직은 칼리파제 국가 설립을 향한 작업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Gambhir 2014, 9).

DABIQ ISSUE NO.1에는 ISIS/ISIL 또는 IS를 지하디스트 유산의 상속자로 설명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르카위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당파들(parties)이 함께 했고, 이는 현재의 시리아 분쟁과도 유사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주의 이념, 외제무기 사용으로 결국 탈리반의 패배를 가져왔고, 이는 오늘날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는 지하디스트 그룹들에게 하나의 경고로 작용한다.⁶⁷⁾ DABIQ에서는 ‘지하드를 대망의 칼리파(awaited Khalifah)로 나아가는 길에서 거쳐야 할 여러 다리들(bridges) 중의 하나’로 그리면서 알 까에다의 지도자, 즉 오사마 빈 라덴 보다는 자르카위를 ‘역사적 칼리파제 사명의 유산상속자(inheritor of historical caliphate mission)’로 그려지고 있다(DABIQ ISSUE NO.1 1435, 35). 아프가니스탄 시절에 자르카위는 요르단 지하디스트로서 오사마 빈 라덴과 가깝게 지냈지만, ‘라덴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주의했다.’(Gambhir 2014, 8). 자르카위와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IS는 이를 바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이

67) IS는 ‘민주주의의 우상(idol of democracy)’ ‘민족주의 우상(idol of nationalism)’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끌었던 알 까에다가 아닌) 자신들이 ‘전 세계적 지하디스트 운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독립 조직’이라고 주장한다.⁶⁸⁾ DABIQ에서 IS는 2011년 AQI의 패배는 ‘알라가 포고한 시험(test decreed by Allah),’ ‘믿는 자들을 단결시키고 심약한 자(weak-hearted)를 추방시키기 위한 신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그려졌다(DABIQ ISSUE NO.1 1435, 39).

DABIQ는 자르카위 지도 하에서의 ISI의 영토를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Bayt al-Maqdis)으로부터 둘을 한 번 던지면 다다를 거리에 있을 정도의 무슬림 세계의 심장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DABIQ ISSUE NO.1 1435, 38).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ISI(현재의 IS)가 중동의 주요 지역을 종교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말해주는 것이다(Gambhir 2014, 9).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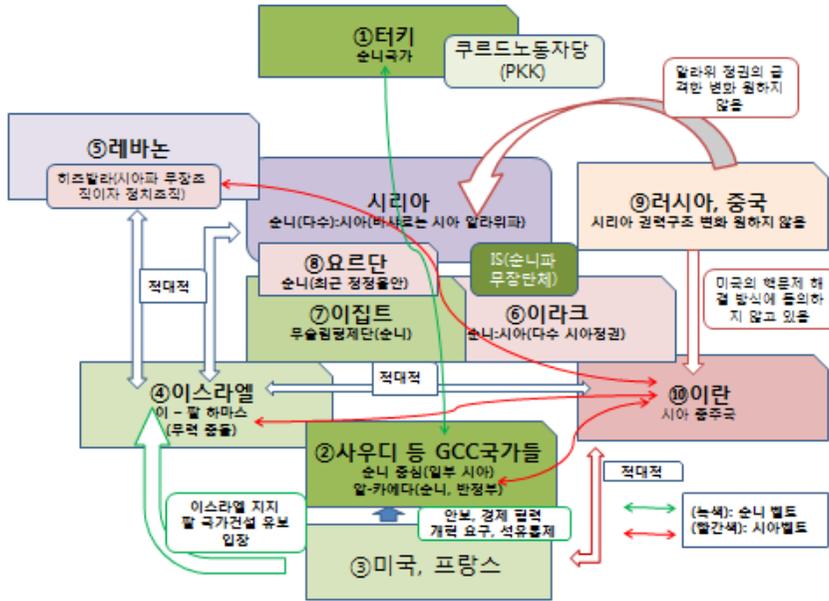
이라크-삼/레반트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통제지역을 넓히고 있는 IS의 궁극적 목표는 이 지역 뿐 아니라 중동 지역, 더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범위의 칼리파제 국가, 즉 이슬람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7>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중동 국제관계 속에서 IS 지위는 매우 미약하다.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IS의 반인권적 폭력성으로 인해 반 IS 연대는 강화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2015년 1월부터 IS 자체의 자금력, 군사력, 무자헤딘 충원력 등의 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S는 세계를 다르 알-이슬람과 다르 알-하르브로 구분하고 다르 알-이슬람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IS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주(hijrah) → 공

68) 자르카위는 아프간 시대 이후, 이라크 쿠르드지역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지도하고 있었고, 이 그룹이 결국 이라크 알-까에다가 되었음.

〈그림 7〉 현 중동 국제관계 속에서의 IS의 위치



동체 형성(Jamaah) → 우상파괴(destabilization taghut) → 합병(tamkin) → 칼리파제 국가(Khilafah) 건설 등 5단계 전략과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그들의 목표, 실행 방안 및 전략들, 자신들의 적에 대한 엄포 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와 몇몇 유럽어로 된 디지털 저널 *DABIQ*를 출판하여 공개해 왔다. IS는 1924년 오스만 제국의 몰락 시 붕괴된 칼리파제 국가 재건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매우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조직이다. IS가 궁극적 목표로 하는 칼리파제 국가는 이슬람 정치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상적 공동체로 여겼던 정통 칼리파(Khalifa Rashidun) 시대의 신정체제이다. *DABIQ*의 내용으로 보아, IS가 추구하는 칼리파(Khilafah)는 절대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절대주의적 신정체제이다.

*DABIQ*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S의 궁극적 목표인 칼리파, 즉 칼리파제 국



가, 이맘제 국가, 이슬람국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칼라파 구축 로드맵 및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IS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DABIQ ISSUE NO.1~NO.6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분석을 통해 IS의 행동, 전략, 목표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필요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ISIS, ISIL, IS, 이슬람 국가, 다비끄(DABIQ), 칼리파, 살라피스트-지하디즘, 아부 무사부 알 자르카위,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바이야(bay'ah), 외로운 늑대들, 국가의 이슬람화, 자마아(Jama'ah), 이마라(Imarah), 타아(Ta'ah), 히즈라(hijrah), 탐킨(tamkin)]

참고문헌

- 손주영(1997). 『이슬람 칼리파제史』, 서울, 민음사.
- 인남식(2014). “이라크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등장 of 함의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4-30.
- 정상률(2013). 『이슬람국가론과 지대국가론』,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정상률(2012). “마우두디의 정치경제사상: 이슬람국가론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3권 제1호, 31-58.
- 정상률(2014).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IS와의 전쟁, 그 함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 「안보현안분석」 vol. 100, 5-8.
- CNN. “ISIS can 'muster' between 20,000 and 31,500 fighters, CIA says.” (<http://edition.cnn.com/2014/09/11/world/meast/isis-syria-iraq> 2014.9.12)
- DABIQ ISSUE No.1. RAMADAN 1435. “The Return of Khilafah.”
- DABIQ ISSUE No.2. RAMADAN 1435. “The Flood.”
- DABIQ ISSUE NO.3. RAMADAN 1435. “A Call to Hizrah.”
- DABIQ ISSUE No.4. RAMADAN 1435. “The Failed Crusader.”
- DABIQ ISSUE No.5. RAMADAN 1435. “Remaining and Expanding.”
- DABIQ ISSUE No.6. RAMADAN 1436. “Al-Qa'idah of Waziristan: A Testimony from Within.”
- Gambhir, Harleen K.(2014). “DABIQ: The Strategic Messaging of the Islamic State”, *ISW(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August 15. (http://www.understandingwar.org/sites/default/files/Dabiq%20Backgrounder_Harleen%20Final.pdf)
- Al-Mawardi(450AH). *Al-Ahkam al-Sultaniyya*. The Ordinances of Government(The Laws of Islamic Governance) Translated in English by Asadullah Yate(1996), London, Ta Ha Publishers Ltd.
- Al-Mawardi(450AH). *Al-Ahkam al-Sultaniyya*. The Ordinances of Government Translated in English by Wafaa H. Wahba(1996), London, Garnet Publishing Ltd.
- Berger, J. M.(2014). “The Islamic State vs. al-Qaeda”, *Foreign Policy*, 9월.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4/09/02/islamic_state_vs_al_qaeda_next_jihadi_super_power)
- CNBC(2014a). “Iran seeks give and take on militants, nuclear program.” (<http://www.cnn.com/id/102019065> 2014.9.21)
- CNBC(2014b). “How ISIS managed to acquire \$2B in assets.” (<http://www.cnn.com>)



- com/id/101761986# 2014.6.16)
- Friedman, George(2014). “The Islamic State Reshapes the Middle East,” *Stratfor*. (<http://www.stratfor.com/weekly/islamic-state-reshapes-middle-east#axzz3K17snwqD> 2014.11.25)
- Gibb, Hamilton Alexander Rosskeen(1937). “al-Mawardi’s Theory of Caliphate,” *Islamic Culture*, xi, No.3.
- Gibb, Hamilton Alexander Rosskeen(1962). “al-Mawardi’s Theory of Caliphate,” Shaw, Stanford J. and Poll, William R. eds. *Studies on the Civilization of Islam*. Boston, Beacon Press.
- Hamid, Eltigani Abdulqadir(2001). “Al-Mawardi’s Theory of State: Some Ignored Dimens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slamic Social Sciences*, 18-4.
- Hof, Frederic C. & Simon, Alex(2012). “Sectarian Violence in Syria’s Civil War: Causes, Consequences, and Recommendations for Mitigation,” IMUNA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Association) (<http://imuna.org/sectarian-violence-syria%E2%80%99s-civil-war-causes-consequences-and-recommendations-mitigation> 2014.4.5).
-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http://www.ibtimes.co.uk/islamic-states-women-warriors-how-fierce-al-khansa-battalion-was-borne-out-repression-1461016> 2014.8.13)
- Kaplan, Robert D. (1993). “Syria: Identity Crisis,” *The Atlantic*(February).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1993/02/syria-identity-crisis/303860/2014.12.10>)
- Khan, Quamaruddin(2008). *Al-Mawardi's Theory of The State*. Islamic Book Foundation, Lahore(2008년 디지털화됨).
- Lambton, ann K.S.(1981). *State and Government in Medieval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am, Charles E.(1964). *Political Power*. New York, Collier-Macmillan, Ltd.
- Mikhail, Hanna(1995). *Politics and Revelation: Mawardi and After*, Edinburgh University Press.
- Rosenthal, E.I.J.(1962). *Political Thought in Medieval Islam: An Introductory Outl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ji, Abu Bakr. *Idarah al-Tawahhush: Akhtar Marhalah Satamurru biha al-Ummah (The administration of savagery: the most dangerous phase through which the ummah will pass)*. N.p.: Markaz al-Dirasat wa al-Buhuth al-Islamiyyah, Nd.).
- Oakford, Samuel. “Islamic State: Foreign Fighters Are Flooding Into Iraq and Syria to Join the Islamic State.” (<https://news.vice.com/article/foreign-fighters->

- are-flooding-into-iraq-and-syria-to-join-the-islamic-state 2014.11.18.)
- Palmer, Monte(2007). *The Politics of the Middle East*. Thomson Wadsworth.
- Phillips, A.(2014). “The Islamic State’s Challenge to International ord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5, 495-498.
- Press TV, “There is no parallel between ISIL and Viet Kong: Don DeBar”
(<http://www.presstv.ir/detail/2014/09/21/379452/isil-is-construct-of-cia-us-journalist/> 2014.9.21).
- Qamar-ud-Din Khan(1983). *Al-Mawardi's Theory of the State*, Islamic Book Foundation.
- Rosenthal, Erwin I.J.(2009). *Political Thought in Medieval Islam: An Introductory Outl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an, Michael W. S.(2014). “Dabiq: What Islamic State’s New Magazine Tells Us about Their Strategic Direction, Recruitment Patterns and Guerrilla Doctrine,” The Jamestown Foundation. (http://www.jamestown.org/programs/tm/single/?tx_ttnews%5Btt_news%5D=42702&cHash=0efbd71af77fb92c064b9403dc8ea838 2014.11.24.).
- Ryan, Michael W. S.(2013). *Decoding al-Qaeda’s Strategy: The Deep Battle Against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ttp://www.tawhed.ws/a?a=chr3ofzr> 2014.12.12)
- Sarkhasi. “Shams al-Din”, *al-Mabsut*, vol 14. (<http://www.islamreligion.com/articles/376> 2014.10.10).
- The Clarion Project(2014). “Fact Sheet: The Islamic State(ISIS, ISIL)” (<http://www.clarionproject.org/sites/default/files/islamic-state-isis-isil-factsheet-1.pdf> 2014.11.25.)
- The Wall Street Journal(2014a). “U.S. Aims to ‘Degrade and Destroy’ Militants.”(<http://online.wsj.com/articles/obama-says-us-aims-to-shrink-islamic-states-sphere-of-influence-1409743189> 2014.9.3).
- The Wall Street Journal(2014b). “Islamic State Economy Runs on Extortion, Oil Piracy in Syria, Iraq.” (<http://online.wsj.com/articles/islamic-state-fills-coffers-from-illicit-economy-in-syria-iraq-1409175458> 2014.8.28).
- Warrior Publications. (<https://warriorpublications.wordpress.com/2014/10/25/kurdish-women-warriors-fighting-islamic-state-in-syria-and-iraq/> 2014.9.5)
- Wagemakers, Joas(2012). *A Quietist Jihadi: The Ideology and Influence of Abu Muhammad al-Maqdisi*,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kipedia. “Jama'at al-Tawhid wal-Jihad” (http://en.wikipedia.org/wiki/Jama'at_al-



Tawhid_wal-Jihad 2014.11.4).

Yate, Asadullah(1996). *Al-Ahkam Al-Sultaniyyah: The Laws of Islamic Governance*, London, Ta-Ha Publishers.

Zahid, Farhan(2014). “The Caliphate in South Asia: A Profile of Hizb-ut Tahrir in Pakistan,” in *Terrorism Monitor*(July 10). (http://www.jamestown.org/single/?tx_ttnews%5Btt_news%5D=42600&no_cache=1).

2005년 7월 9일 아부 모함매드(Abu Mohammad)가 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에게 보낸 편지. (https://web.archive.org/web/20120119014714/http://www.dni.gov/press_releases/letter_in_english.pdf 2014.11.4).

논문접수일: 2014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06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06일